

17년 이어온 아주 특별한 점심식사

글 정재학 작가/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향기네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중인 임성택 대표.

※ 임성택 대표: 1967년 강원도 정선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출생. 1984년 경기도 여주 이주. 1985년 여주고 졸업. 1996년 시골해장국 개업. 2000년 향기네무료급식소 개소. 경기도지사 표창, 소사나눔봉사상, 부천시장 표창, 아산상 자원봉사상 등 수상. 아내와의 사이에 1남 1녀.



매일 12시에 시작하는 급식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하루에 120~150명이 이용한다.

경기도 부천 송내역 앞 이면도로에 자리한 시골해장국집. 점심시간이 가까운데도 식당 앞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른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몇몇 손님을 제외하면 자리에 여유도 많다. 하지만 식당 뒤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해장국집과 맞닿은 또 하나의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북적거린다. 구내식당처럼 긴 식탁이 줄지어 놓여 있는 공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6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지만 한두 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는 ‘단골손님’들도 많다. 이곳에서는 30분 정도 간격으로 2회전을 하면서 하루에 1백50명가량이 점심식사를 한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해 매일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향기네무료급식소’다. 향기네급식소를 운영하는 임성택(49) 대표는 이 급식소와 붙어 있는 시골해장국집 사장이기도 하다. 개인이 이렇게 건물까지 임대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건물 안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면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한 곳을 먼저 지원하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원보다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식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과 무료급식소를 함께 운영하다 보니 점심시간에는 본업인 식당 영업보다 급식소 일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의 생각은 확

고하다.

“월요일은 배가 고프고, 화요일은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365일 매일 밥을 먹어야 하니까 매일 점심을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일별로 날짜를 골라 밥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봉사하는 시늉만 내는 것 같아서 못하겠단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 그것이 향기네무료급식소를 17년째이나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 됐다.

우동 한 그릇으로 시작하다

그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아버지는 광부였다. 개도 1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좋은 시절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와 형이 함께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가족들은 재기를 위해 정선을 떠나 경기도 여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경험이 쌓이자 자신만의 식당을 차려 독립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식당을 찾다보니 부천까지 오게 됐다. 처음에는 분식점으로 시작했지만 곧 24시간 해장국식당으로 ‘종목’을 바꾸었고, 해장국 집이 잘 되자 근처에 생고기식당을 추가로 열었다.

그는 사업도 열심이었지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98년 어느 날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무료급식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녁에 영업하는 생고기식당을 이용해 점심식사 봉사를 하고 싶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직원들에게 점심 준비까지 부탁하기는 어려웠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머리를 식힐 겸 산으로 훌쩍 떠났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돌아왔다. 산에서 우동을 끓여 먹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밥은 몰라도 우동이라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대접할 수 있다.’



항기네급식소의 등록 자원봉사자는 100명에 달한다(왼쪽). 부천의 카페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15명으로 구성된 '항기네 모금공연단'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8시 1호선 송내역에서 거리공연을 한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계획을 당장 실천에 옮겼다. 2000년 1월 2일을 '디데이'로 잡고 가게 앞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드디어 급식소 오픈 첫 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가게 문을 열었더니 20여 명이 급식소를 찾아왔다. 혼자서도 20명분의 우동은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다. 비록 우동 한 그릇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뻐졌다.

첫날 20명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더니 한 달쯤 지나자 40명 정도가 됐다. 그즈음 급식소를 자주 찾던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한 마디씩 했다.

“무료로 우동을 제공해줘서 고맙긴 한데 매일 밀가루음식만 먹으려니 힘드네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 그것도 밀가루로 만든 우동을 먹는 것이 힘든 모양이었다.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밥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활동해온 천리안의 온라인 봉사커뮤니티에 들어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몇몇 회원들이 돕겠다고 나섰다. 뜻을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우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던 자원봉사자는 현재 1백 명이 넘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항기네무료급식소(cafe.daum.net/lovesoll)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회도 결성했다.

해장국집 수익이면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생고기집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적으로 무료급식소 사업에 보탬다. 처음 생고기집을 열었을 때만 해도 장사가 무척 잘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인근에 비슷한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그의 생고기집도 타격을 받았다. 낮에 무료급식소를 하느라 본업인 생고기집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 매출도 점점 떨어졌다. 결국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커녕, 생고기집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

급식소 7년에 빚 7천만 원 쌓여

적자 폭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생고기집 영업을 중단했다. 무료급식을 중단할 수는 없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점심식사 봉사는 계속했다. 무료급식소를 연 지 7년이 지난 2007년, 그에게는 7천만 원이라는 빚만 남았다. 생고기집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을 계속 까먹었다. 보증금 1천5백만 원마저 다 까먹으면 급식소 운영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년을 해온 일인데 급식소 문을 닫기로 마음먹고 나니 무척 아쉬웠다.

‘뭔가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

그는 몇 달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결방법을 찾아다니다가 해장국집 뒤편 공간이 1년 넘게 비어 있는 것을 알았다. 건물주를 찾아가 보증금을 나중에 낼 테니 일단 월세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차피 비어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문 닫을 뻔했던 급식소는 이렇게 자리를 옮겨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항기네무료급식소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결성됐고,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향기네 모금공연단’은 거리공연을 통해 급식소 운영비를 모금한다. 부천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매달 3백만~4백만 원 정도는 그가 해장국집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충당한다.

무료급식소를 시작한 지 17년째, 매일 보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의 가슴도 철렁한다. 가끔 유족들이 부모의 부고를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면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초창기부터 식사를 하러 오시던 노인들 가운데 90%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많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식사하러 오는 노인이 있었다. 돈도 많은 분이 왜 여기서 식사할까, 궁금해서 알아보니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분이였다. 지저분한 차림새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상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옷은 다른 사람들이 낚아서 버린 옷을 주워 입은 것이었다.

향기네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꿈

또 한 사람은 밥이며 국이며 남들보다 많이 받아서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 노인이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측은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을 몇 채 가진 부자였다.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할아버지께 다가가 살며시 물어봤다.

“할아버지, 집도 잘 사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는 내가 가장 못 살아.”

돈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먹든 상관하지 않는다. 배가 고픈 누구에게라도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이다.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밥을 먹으러 급식소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료로 밥을 제공해도 몸이 불편해서 먹으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 수백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기도 했다. 또 부정기적으로 영정사진 봉사활동도 펼칠 정도로 봉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가족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낮에는 아내, 저녁과 새벽에는 자신이 가게를 지킨다. 각각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아들과 딸을 학원에 제대로 보낸 적도 없고, 외식이나 여행을 간 적도 별로 없다. 아이들은 무료 급식에 쓰는 돈이면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다. 지금은 아빠를 이해해주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훌쩍 큰 아이들로



무료급식소와 잇닿은 식당(시골해장국)을 운영 중이다. 낮시간을 책임지는 아내와 함께.

성장해서 고마울 뿐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늘 자립심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이후의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말한다. 그런 교육 덕분인지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땅찮을 때는 엄마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와서 일하고 용돈을 받아갔다.

특히 아내(47)에게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다. 그는 아내가 새 옷을 사 입을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 화장품도 샘플을 받아서 쓸 정도다. 뭐라도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 줄 정도로 욕심이 없다. 10년 전 그가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도 바로 아내였다. 아내는 그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2015년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받은 상금(3천만 원)으로는 식당 건물 지하에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조그만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현재 노래와 사진, 가족공예 강좌 등 몇몇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이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춰 보육시설을 떠나야 할 나이가 된 아이들이 머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키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끔 탄광촌에서 땅따먹기를 하며 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한 뼘이라도 더 땅을 따먹으려고 손이 새카맣도록 돌을 텅기고 금을 그으면서 놀이에 집중했지만 밥 먹으러 오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터덜터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기억들.

이미 그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한 톨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 돈은 남지 않아도 사랑은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남을 테니까. ☺